

머라이어 캐리 '성탄연금' 캐럴... '하루 1200만 회 재생'

크리스마스 앞두고 영미 차트 동시 석권

매년 연말마다 등장...5억원 이상 수익 올려

'24시간 동안 많이 스트리밍된 음악' 기네스

미국 팝스타 머라이어 캐리의 캐럴인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세계 양대 팝시장인 영미 주요 차트를 동시에 석권했다.

14일(현지시간) 빌보드 예고 기사에 따르면,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19일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발매 25년 만인 지난해 말 처음으로 '핫100' 정상에 올랐던 이 곡은 지난달 28일 차트 29위에 재진입 후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역주행, 3주 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작년 '핫100' 1위를 차지했을 당시에도 기록을 세웠다. 1958년 데이비드 세벨 앤드 더 칩멍크스의 '칩멍크 송(Chipmunk Song)' 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한 크리스마스 음악이었다.

지난 13일에는 빌보드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 양대 팝 차트인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발매된 지 26년 만에 처음으로 차트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는 "캐리의 '크리스마스'는 세계 팝 차트의 역사를 새로 만들었다"면서 "핫100과 영국 싱글차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첫 번째 캐럴"이라고 보도했다.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는 캐리가 1994년 발표한 앨범 '메리 크리스마스'에 실린 곡이다. 캐리와 프로듀서가 함께 만들었다. 역시 연말마다 소환되는 영화 '러브 액츄얼리'(2003) 등에 삽입되며 지속적인 인기를 누렸다.

매년 연말마다 차트에서 등장, 캐리에게 '성탄 연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농담 같은 진담도 나온다. '더 섀' 등 외신에 따르면, 이 곡은

매년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까지 10억회에 이르는 스트리밍 횟수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Spotify)'에서 하루 동안 1200만 회 이상의 재생 횟수를 기록, 기네스북의 여성 아티스트 노래 중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음악' 부문에 기록되기도 했다.

또 기네스북에 '솔로 아티스트 크리스마스 트랙 중 가장 높은 차트 기록', '가장 오랜 시간 UK 싱글 톱 10에 머무른 크리스마스 트랙(24주)' 등의 기록도 가지고 있다.

미국 일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인기기에 대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호소력,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기준에 적당한 익숙한 것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힘" 등을 꼽았다. "휴일 재생목록에 완벽하게 끼워넣을 수 있는 트랙"이라는 것이다.

캐리는 LAT와 인터뷰에서 "휴일 기분으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생각하고 싶었다"면서 "내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마음을 돌이키며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캐리는 현재 진행형의 아티스트다. 빌보드 '핫100' 정상에 19곡을 올리며 솔로 아티스트 중 최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 솔로, 그룹을 통틀어도 영국 밴드 '비틀즈'(20곡)에 이어 2위다. '핫100' 누적 최장기간에서는 83주로 1위다.

최근 발매한 신곡도 호응을 얻고 있다. 아리아나 그란데, 제니퍼 허드슨의 피쳐링 버전으로 지난 4일 발매한 '오 산타(Oh Santa)' 리믹스는 하루 만에 미국 아이튠즈차트(US iTunes Charts) 1위를 달성했다. 이 곡은 19일자 '핫100' 76위에도 올랐다.

태연 "새 앨범, 쿨하고 덩덤함에 힙합 한 방을 섞어"

직접 작사·작곡 참여한 '투 더 문(To the moon)'도 실려

"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요즘 제 감성도 그렇고, 방향 뛰는 분위기의 음악은 끌리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솔로가수 태연이 15일 새 미니앨범 '왓 두 아이 콜 유(What Do I Call You)'를 발매했다.

앨범의 동명 타이틀 곡 '왓 두 아이 콜 유(What Do I Call You)'는 미니앨범과 리드미컬한 선율이 특징인 R&B 팝곡이다.

태연이 "쿨하고 덩덤함에 힙(Hip)한 한 방을 섞은 느낌"이라고 표현한 이 곡은 이별 후에도 여전히 주변을 맴도는 그에게 느끼는 감정을 덩덤하고 무심하게 노래하는 태연의 보컬이 이어진다.

같은 시각 유튜브 및 네이버TV SMTOWN에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는 헤어진 연인에 대한 감정과 함께 했던 추억을 감각적으로 담았다.

태연은 "뮤직비디오도 다양한 스타일링으로 이별 전후를 회상하듯 표현했다"면서 "남자친구 역으로 팬더군이 나오는데, 뮤직비디오 촬영 내내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가면 쓰고 고생해준 모델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앨범에는 태연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투 더 문(To the moon)'도 실렸다. "정말 저의 일상을 녹여낸 곡이에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반려견인 제로에 대해서도 꼭 담아보고 싶었는데 가사를 보시면 아실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와 함께 어쿠스틱 기타와 피아노, 북고풍의 오르간 사운드가 부드럽고 나른한 태연의 목소리와 어우러진 '플레이리스트' 등이 실렸다.

또 뜨겁게 번져가는 사랑의 감정을 들뜬 '들불(Wildfire)', 한 사람을 만나 모든 게 달라지는 기적 같은 순간을 그린 R&B 발라드 '갤럭시(Galaxy)', 지난 5월 싱글로 공개된 '해피(Happy)' 등 총 6곡이 실렸다.

태연은 올해 신곡 발표 외에도 각종 클래식 버라이어티, 드라마 및 게임 OST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였다. 특히 tvN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 출연은 팬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평소 예능 출연이 드물었던 그녀이기 때문이다.

태연 역시 "아무래도 '놀라운 토요일'이 제게 제일 놀라운(?) 이슈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랜만의 예능 고정 출연이기도 하고, 게스트들과 놀도 식구들, 제작진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과 많이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고 흥취해했다.

신시아, '마녀2' 주인공 낙점

1408대 1 경쟁률 뚫어

신에 신시아(22)가 '마녀 2'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15일 배급사 뉴(NEW)와 소속사 엔드마크에 따르면 신시아는 오디션을 통해 '마녀 2'에 캐스팅됐다.

14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마녀 2' 주인공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시아는 신인으로도 아직 작품활동이 없다. 얼굴도 공개되지 않았다.

'마녀' 박훈정 감독은 최종 후보를 놓고 고민하다가 신시아가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어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독은 '마녀' 당시 무명배우였던 김다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바 있다.

2018년 개봉한 '마녀'는 시설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은 의문의 사고, 그날 밤 홀로 탈출한 후 모든 기억을 잃고 살아온 고등학생 자운(김다미) 앞에 의문의 인물인 미스터리 액션물이다. 개봉 당시 318만명을 동원하며 인기를 끌었다.

앞서 주인공 김다미가 후속편 출연을 결정



했고 이종석도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박훈정 감독이 전편에 이어 연출을 맡는다.

영화는 이달 크랭크인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소현·지수 '달이 뜨는 강', KBS 월화 드라마 확정

내년 상반기 첫 방송

드라마 '달이 뜨는 강'이 내년 상반기 KBS 2TV 월화드라마 편성을 확정했다.

'달이 뜨는 강' 측은 "21일 시작하는 안행어사: 조선 비밀 수사단" 후속으로 오는 2021년 상반기 첫 방송된다"고 15일 밝혔다.

드라마는 태양을 꿈꾸며 온달의 마음을 이용한 평강(김소현 분)과 바보스럽게 희생만 했던 온달(지수)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다.

평강공주 설화 속 캐릭터를 가지고 온 픽션 사극이다.

김소현과 지수 외에 고구려 최고 엘리트 장군 고건 역에 이지훈, 특별한 능력과 비밀을 품고 있는 해모용 역에 최유화가 캐스팅됐다.

극 초반 이야기 전개에 핵심 역할을 할 온달 아버지 운협은 강하늘이 연기한다.



연출은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바람과 구름과 비' 등의 윤상호 PD가 맡았으며, 극본



은 드라마 '카이스트', '개와 늑대의 시간', '99억의 여자' 등을 집필한 한지훈 작가가 쓴다.

"코로나 시대, 유희열 안테나가 할수 있는 위로의 방식"

소속 가수 총 출동...20일 공개

작곡가 겸 프로듀서 유희열이 이끄는 음악 레이블 '안테나'가 처음 캐럴을 발표한다.

14일 안테나에 따르면, 안테나 소속 열세 팀이 참여한 총출동한 크리스마스 노래를 20일 공개한다.

올해 모두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달래줄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다.

안테나 소속 아티스트가 모두 참여한 크리스마스 캐럴을 발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인 프로젝트 밴드 토이를 이끄는 안테나 수장 유희열을 비롯해 정승환, 샘김, 정재형, 루

시드폴, 페퍼톤스, 박세미, 권진아, 이진아, 윤석철, 적재, CHAI(이수정), 프로듀서 서동환 등 소속 아티스트 전원이 참여했다.

안테나는 "이번 프로젝트는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올 한해의 끝을 앞두고 안테나가 할 수 있는 위로의 방식에 대해 고민하던 회의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박소담·이승기·이다희·성시경, 골든디스크 MC

내년 1월 9~10일 방송...JTBC·JTBC2·JTBC4에서 생중계

박소담과 이승기, 이다희와 성시경이 2년 연속 골든디스크어워즈 MC로 나선다.

골든디스크어워즈 사무국은 15일 "박소담과 이승기가 2021년 1월9일, 이다희와 성시경이 1월10일 방송되는 '35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큐라프록스' MC로 호흡을 맞춘다"고 밝혔다.

첫날인 디지털 음원 부문 시상식에는 박소담과 이승기가 MC를 맡는다.

영화 '기생충', 드라마 '정춘기록' 등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박소담과 연기와 예능은 물론 본업인 가수로 정규 7집까지 발매하며 알찬 한 해를 보낸 이승기가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호흡을 맞춘다.

둘째 날에는 골든디스크를 시작으로 가요, 예능 등 MC 합격점을 받은 이다희와 5년 연속 마이크를 잡으며 편안함을 전하는 성시경이 2년 연속 호흡을 맞춘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오랜 기간 MC로 활약한 듯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35회 골든디스크 시상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발매한 음원과 음반이다.

지난해 심사 집계 마감 기간에 맞물려 평가에서 배제된 노래와 앨범은 이번 심



사 대상에 포함된다.

음원 이용량과 음반 판매량 등 정량 평가 60%와 심사 성적 40%로 대상 및 본상, 신인상 등 주요 부문 수상자를 결정한다. 심사는 골든디스크어워즈 집행위원회와 음원 유통사 관계자, 방송사 음악 프로그램 PD, 평론가, 가요 담당 기자 등 가요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단이 맡는다.

'35회 골든디스크어워즈 with 큐라프록스'는 JTBC, JTBC2, JTBC4에서 생중계된다.